

# ‘평창올림픽 특수 끝’ 강원 산업생산 22%↓... 전국 끝까지

## 통계청 2분기 지역경제 동향

건설수주 706% -23% 감소세 전환  
울산·전북 채용 줄어 실업률 ‘껍충’  
반도체 효과로 인천·경기 생산 늘어

평창 올림픽 특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강원도 지역의 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울산·전북 지역은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강원도 지역의 2분기 광공업 생산은 비금속광업 등이 줄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9% 감소했다.

이는 국내 전 지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0% 늘

면서 증가 폭이 전 분기(3.8%)보다 크게 둔화했다.

전 분기 70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건설수주도 23.6%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평창 올림픽에 따른 생산·소비 특수가 사라진 영향이 큰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조선업·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영향이 계속되면서 관련 업체가 집중된 울산·전북·경남 지역의 일자리 지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울산은 취업자 수가 1만6천명 줄어 들면서 고용률이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한 59.2%에 그쳤다.

전북도 고용률이 0.7%포인트 하락한 59.0%를 기록했고 부산은 56.8%에서 55.8%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울산 지역 실업률은 3.6%에

서 5.0%로 경증 뛰었고 전북은 2.7%에서 3.0%로 상승했다.

고용 한파 영향으로 울산·전북·경남의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각각 0.6%, 0.3%, 0.5% 등으로 모두 0%대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과 경기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각각 10.2%, 8.2% 늘었다.

건설수주는 울산(83.2%), 충남(59.0%)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78.7%), 경남(-58.5%) 등은 주택이 주로 줄었고 세종(-56.3%)은 사무실·점포 등의 수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3.4%

늘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조선업 부진 여파로 경남은 53.7%나 줄었다. 반면 세종은 차량 부품을 중심으로 34.6% 늘었고 제주는 반도체 부품 호조세로 32.0%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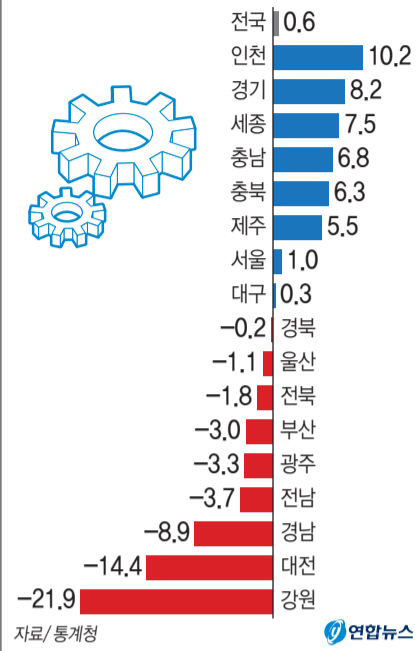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부산(2.0%), 대구·충북(1.8%) 등이 평균(1.5%)을 웃돌았고 강원(1.2%), 울산·전북(1.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산과 대전은 서비스 물가가 2.1%, 1.9%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구 이동을 보면 경기(4만199명), 세종(8409명), 제주(2769명) 등 6개 지역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2만9887명), 부산(-7372명), 대전(-3516명) 등 11개 지역은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시도별 광공업생산 증감률  
2분기 기준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도산 안창호 탄생 140주년 기념메달 출시  
한국조폐공사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조폐공사 영업개발단 제품홍보관에서 ‘도산 안창호 탄생 140주년 기념메달’을 선보이고 있다. 기념메달은 금(순도 99.9%, 31.1g), 은(순도 99.9%, 31.1g) 2종으로 금 300개, 은 1000개 한정수량으로 발행된다. 기념메달 가격(부가세 포함)은 개당 금메달 297만원, 은메달 11만원이다.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조폐공사, 풍산화동양행, 현대백화점 온라인 물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우체국 전국 지점에서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농식품부 아시안게임서 韓 ‘매운맛’ 알린다

홍보관 설치 등 농식품 집중 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연계해 한국 농식품을 집중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45개국 40종목 463개 경기를 개최하며, 한국은 39종목 1000여명이 참가한다. 관람자는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개·폐막식이 열리는 글로라봉카르노 경기장 인근 쇼핑몰(FX Sudirman Mall) 정면에 한국 농식품(K-Food) 홍보관을 설치한다.

이곳에서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와 아시아지역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을 5개 테마로 정해 전시·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K-프레시 존(Fresh Zone)’에서 배·사과·복숭아·버섯류(새송이·팽이)를 ▲‘레드 앤 핫(Red&Hot)’을 주제로 테마 오미자·홍삼·고추장·떡볶이 등 빨간색·매운맛 식품을 ▲할랄 구역에선 김치·간장·음료 등 MUI 인증품목을 ▲인기상품 구역에선 불닭볶음면·컵볶이·컵누룽지 등 인도네시아 인기품목을 ▲미래를 구역에선 유자이드베이스·복분자즙 등을 선보인다.

MUI는 인도네시아 유일의 할랄 인증 기관으로, 말레이시아 JAKIM, 싱가포르

르 MUIS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으로 불린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한 한식체험관(자카르타 한식당협의체), 전통문화 체험관(한국문화원), K-콘텐츠 홍보관(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농식품 이미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측전도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메신저, 인도네시아 대형유통업체와 현지 진출 국내 유통업체(4개점)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아시안게임 연계 홍보가 끝나는 대로 미국·중국·프랑스·일본·홍콩 등 주요 농식품 수출국을 대상으로 K-푸드 페어(Food Fair)를 개최한다. 또한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해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상승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페어(Food Fair), 국제식품박람회 등은 농식품 수출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신선농산물에 대한 시식·관측 행사도 확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 상장사 상반기 순익, 삼성전자 제외뎀 7.3%↓

전체 순익 63.4조원... 1.27% 증가  
섬유의복·의식료품 분야 흑자폭 커

삼성전자를 뺀 상장기업들의 상반기 순익이 뒷걸음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924조 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4조 4000억원, 순이익은 63조 4000억원으로 각각 8.56%와 1.27% 증가했다.

순이익은 상반기 기준 전년 사상 최대인 지난해의 61조원(533개사 기준) 기록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805조 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0.20% 늘어난 53조 9000억원이고 순이익은 41조원가량으로 7.30%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순익은 22조 7000억원으로 전체 순익의 35.9%에 달했고 SK하이닉스는 7조 4000억원으로 11.8%를 차지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76.3%인 409개사가 상반기에 당기순이익 흑자를 냈으나 127개사(23.70%)는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적자전환 기업이 63개사로 흑자 전환 기업(32개사)의 2배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6월 말 현재 106.51%로 작

년 말(108.40%) 대비 1.88%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를 비롯해 의료정밀, 서비스업 등 13개는 작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고 운수장비, 기계, 통신 등 4개 업종은 감소했다.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 폭이 커진 업종은 섬유·의복, 음식료품, 의료정밀, 전기전자 등 8개였다. 기계, 운수장비, 비금속광물, 철강금속 등 7개는 흑자 폭이 줄었고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업은 적자 전환했다.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844개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83조 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4조 5000억원으로 11.26% 감소했다. 순이익은 3조 6000억원으로 5.10% 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40%로 0.85%포인트 하락했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4.30%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김민호 기자 kmh@

## 해수부 “한일어업공동체, 입장차 커 불발”

해양수산부가 이달 초로 예정됐던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양측 의견차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8년 어기(7월~2019년 6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수차례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 초까지 개최기로 예정되어 있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8년 어기 협상은 지난 4월 과장급을 시작으로 5~6월 국장급 3회, 6월 실장급과 차장급 각 1회 등 6차례 이어졌다.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다.

하지만 2015년 어기(2015년 1월~2016년 6월)가 끝난 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올해 어기 협상에서의 주요쟁점은 한국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와 동해중

간수역의 대개 어장 교대 이용이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양국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 어선의 불법어업은 2012년 9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늘었다가, 점차 줄어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대개 어장 교대 이용은 양국 어업인이 2001년~2011년 자율적으로 일정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왔다. 하지만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이범종 기자

## 농관원 추석유통앞둔 농산물 잔류농약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다음달 14까지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 농산물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 품목은 햅쌀·사과·배·복숭아·포도·밤·대추·단감·도라지·고사리·시금치·배추·매론·수삼 등이다.

안전성 조사는 품목별 주산단지과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도로변 농가직판장 등에서 실시한다.

농관원은 주산지 농업인 등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지도·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는 농약 살포 후 명절 성수기에 맞춰 출하 예정일보다 일찍 수확하게 되면, 부적합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계도 할 예정이다.

/이범종 기자